

초등영어 5, 6학년 영어교과서 문화교육 방법 분석

조미영(한양대학교)*

한문섭(한양대학교)**

김경혜(한양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 영어과 검정교과서의 문화학습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문화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학교 5, 6학년 3종의 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문화 소재 및 유형과 문화배경, 그리고 문화학습 방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타문화를 이해하는 소재와 우리나라와의 언어·비언어 문화차이의 비중에 비해 영어문화권의 의사소통방식과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소재가 상대적으로 낮아 교육과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소재별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둘째, 문화유형별 분석에서는 물질문화, 행동문화, 정신문화의 순으로 소개되었는데 문화교육의 목적이 단순한 배경지식을 넓혀주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성을 계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보다 세심한 문화내용 선택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배경별 분석에서는 Expanding Circle, 즉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국가가 해당되는 권역이 높은 비율로 출현하고 이 권역에서도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대륙만을 많이 다루는 등 문화배경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편견을 갖지 않도록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의 문화를 교과서에서 주의 깊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부분의 교과서가 문화학습 방법으로 단순하게 교사의 설명이나 CD-ROM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며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는 조사학습을 제시하고 있었다. 보다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문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역할극, 프로젝트 학습, 비교학습, 발표학습 등과 같이 문화 학습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문화교육, 초등 영어, 교과서 분석, 2009 교육 개정안

* 주저자

** 교신저자 mshan@hanyang.ac.kr

*** 공동저자

1. 서론

국가 간, 민족 간의 활발한 교류와 각종 매체의 발달로 세계는 점차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부터 영어를 초등학교 정규교과로 도입하고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목표로 영어교육에 힘써 왔다. 또한 활발해진 해외여행, 이민, 문화교류 등은 영어권 국가만이 아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게 하여 이제 영어교육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 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불어 문화적인 배경까지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Day(1985)와 Pennycook(1994)은 이러한 영어교육의 변화양상을 영어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이나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역할에서 EIL(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문화교육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문화내용을 언어재료에 포함시키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소재에 문화 항목을 따로 설정하였고, 영어교육의 목표도 '원어민(native speaker)'이 아니라 '문화 간 화자(intercultural speaker)'로 설정하며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성격을 이어가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와 같이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영어 교육 연구에 있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및 논의에 비해 문화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박용규와 박주경(2010)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9년까지의 초등영어교육연구 논문 총 3,592편 중 문화내용 관련 논문은 132편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불과하다. 이는 국제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그에 따르는 국가, 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맞이한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교과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적절한 구현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검정교과서가 적용되면서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택, 지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검정교과서의 경우 출판사별로 지도내용, 구성이 집필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어떠한 문화를 어떻게 학습하게 되는지 일정치 않다. 따라서 각 출판사의 영어교과서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화내용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다루어진 문화내용의 유형과 배경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문화교육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각 출판사의 교과서가 문화교육 방법으로서 어떠한 학습활동과 절차를 제시하여 문화교육 효율성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분

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5, 6학년 영어과 검정교과서 5종 중 판매 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3종을 선정하여(한국검인정교과서, 2015), 문화교육 자료의 문화내용을 소재별, 유형별, 배경별로 분석하고, 더불어 교수학습 방법이 얼마나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문화교육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초등학교 5, 6학년 영어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문화내용 소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
- 둘째, 초등학교 5, 6학년 영어교과서의 문화내용은 어떠한 문화유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
- 셋째, 초등학교 5, 6학년 영어교과서의 문화내용은 문화배경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
- 넷째, 초등학교 5, 6학년 영어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문화교육 방법은 다양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영어교육과 문화교육

가.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Polizer(1960)는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문화를 함께 지도하지 않는다면 의미없는 기호들이나 잘못 해석된 기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영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ivers(1981) 역시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문화교육을 통해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문화양식, 사고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국경을 넘는 인간의 유대를 이루며 외국어를 통해 외국인들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며 앞선 주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더불어 그와 동시에 문화교육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사고방식, 생활양식 등을 이해하게 하여 우리와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준다. 정정섭(1982)은 문화교육을 영어교육에 병행함으로써 외국의 지리 및 기후, 자연자원, 역사, 문화적 업적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쌓게 하는 것과 동시에 관용성, 외국 국

민에 대한 우호적 태도, 공평한 사고 등의 태도를 확립시키고 외국 예술작품의 미, 문화와 인류발달의 기본적인 과정 등에 대한 감상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문화교육은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타문화에 대한 지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인격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따라서 초등영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은 영어교육 및 아동의 인성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나. 문화교육의 유형 및 범주

그런데 문화란 매우 광범위한 것이어서 제한된 영어 수업시간에 모두를 가르칠 수는 없다. 따라서 내용을 선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통된 문화내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Bierstedt(1970)는 문화를 유형문화와 무형문화로 나누고 무형문화를 다시 정신문화(ideas-thinking)와 행동문화(norms-doing)로 분류하였다. 유형문화란 물질문화(things-having)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물, 예를 들어 유적지 및 유물, 풍경, 지형, 기후, 의식주, 교통, 통신, 기계, 도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행동문화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구성원들의 규범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법과 규범, 인사 및 소개법, 가족생활, 사회생활, 관습, 여가활동이 해당된다. 정신문화는 인간이 생각하는 문화로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사회 구성원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가치관, 도덕성, 애국심, 과학적 진리, 역사 및 종교, 언어, 문학 및 예술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에게 실물이나 자료를 통해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의 문화 뿐 아니라 행동양식과 가치관 등의 무형문화 역시 학습 내용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은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Lado(1964)는 문화의 배경을 영어권 문화, 대조 문화, 기타 문화, 보편 문화 배경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우리나라에 대입해보면, 영어권 문화배경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미문화권의 특성 및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고, 대조 문화배경은 한국문화와 영어권 문화, 또는 한국문화와 비영어권 문화가 동시에 다루어지거나 비교되는 내용이다. 기타 문화배경은 한국문화 이외의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내용이며 보편 문화배경은 국가를 초월하여 보편적 일상에서 겪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대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영어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국제어로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현재의 영어가 영미문화권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추세인 것을 볼 때, 영미문화권 이외의 문화를 기타 문화로 분류해버리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Kachru(1985)가 제시한 언어의 세 동심원은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아졌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그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를 내부 원(Inner Circle), 바깥 원(Outer Circle), 확장하는 원(Expanding Circle)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내부 원은 영어가 그 나라의 제 1 언어로 사용되는 국가들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여기에 속하고 바깥 원은 영어가 제 2 언어로 사용되는 국가들로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등이 대표적이다. 확장하는 원은 영어가 외국어로 사용되는 국가들로 중국, 일본, 한국, 독일 등이 속한다. 이들 나라는 바깥 원처럼 영어가 공식어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영어 사용자 수가 많아 계속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어로서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우리 영어교육에서 문화교육 역시 영미 문화권 중심에서 벗어나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권의 문화교육으로 시선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어의 네 기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현장 실험 검증이 이루어진 반면 문화교육의 지도방법에 대해서는 교사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Stern(1992)은 문화교육 방법으로 실제 교실 게시판에 문화내용 전시하기, 문화 설명하기, 자료를 제시하고 토론하거나 실제 동작으로 해보는 문화 캡슐, 주제별로 자료 수집하기, 문화 TPR, 펜팔이나 실제 나라 찾아 가보기, 원어민 초대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학생들이 문화내용을 자료나 설명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실제 활동으로 익히며, 내재화하여 토론 및 발표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완기 · 차경환(1999)의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내용과 지도방법, 김경한(2008)의 영어과 문화교육과정 확립 방안, 김광수(2010)의 초등영어 문화지도를 참고하여 초등학교 영어장면에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문화교육 방법을 정리해보면 문화여담(Culture Aside)과 같이 교사의 직접적인 설명으로 학생들이 문화내용을 습득하는 방법, 문화 TPR이나 문화송이(Culture Clusters), 문화의 섬 환상체험(Culture Island)과 같이 직접 행동하고 경험하면서 문화 이해하기, 학생이 문화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고 발표하는 문화발견기법(Culture Discovery)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Moran(2001)은 학생들이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경험들을 정리하였는데 문화적 정보를 획득하고(대상을 아는 것), 문화적 행동을 발달시키고(방법을 아는 것), 문화적 의미를 발견하고(이유를 아는 것), 개인적인 반응을 표현하면서(자신을 아는 것) 문화 학습자들로서의 능력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대상을 안다는 것은 학생이 타문화에 대한 지식적 정보를 얻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을 아는 것은 태도, 행동 등 문화적 행동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타문화 방식대로 실행해 보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를 아는 것은 자신의 문화와 다른 타문화를 접하며 비교하고 의문을 가지며 그 답을 찾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질문을 서로 나누며 자신을 알아가는 것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의 내재화 단계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문화교육의 방법은 크게 정보 수집

하기, 직접 체험해보기, 자문화와 비교하기, 발표하기 등으로 나눌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학습 방법의 기준으로 역할극, 조사학습, 프로젝트 학습, 비교학습, 발표학습의 5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문화교육

제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영어가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임을 인정하고 총괄목표로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외국 문화 이해로 설정하였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목표뿐 아니라 내용, 교수학습 방법 영역에 문화요소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지만 내용에서 보았을 때 문화의 범위를 영어권으로 한정하였다(교육부, 1999).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어를 국제어 개념으로 사용하였고 영어교육의 목표도 원어민(native speaker)수준이 아니라 문화 간 화자(intercultural speaker)의 수준으로 설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그 내용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7차 교육과정에서 부각된 '문화' 요소가 교과서나 교수학습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문화 요소를 언어재료의 소재에 통합하였다. 이는 각 단원의 언어활동에 자연스럽게 문화가 소재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둘째, 문화에 관련된 방식을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생활양식으로 분리하여 소재 항목에 포함시켰다. 셋째, 7차 교육과정에서의 영어권에만 국한된 문화에 관한 내용을 세계의 다양한 문화로 확대하였다. 즉,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서 다양한 문화와 우리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처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의 비중이 커지고, 영어권에 국한된 문화가 아니라 이를 비영어권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보다 구체화되었다. 일반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한 가지만 제시했던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언어 기능별 교수학습 방법과 함께 문화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수학습 방법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세 가지의 구체적인 문화지도 방법은 아래와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11:22).

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지도한다.

나. 놀이와 체험 중심의 문화학습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해하도록

록 지도한다.

다. 정보통신 기술 및 기타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등을 활용하여 영

어권 및

비영어권 문화자료를 학생 스스로 탐색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이처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한 문화관련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목표, 내용, 소재, 교수학습 방법에서 문화관련 항목을 이전 교육과정보다 명시화하며 문화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초등영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에 관해 최근에 출판된 기존 연구들(강지영, 2014; 김유정, 2012; 박선희, 2012; 변정미, 2013)을 종합하여 볼 때 교과서의 문화내용을 분석하는 기준은 보통 문화소재, 문화유형, 문화배경 세 가지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교육과정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찾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또한 교사들의 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타문화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따로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지도서나 CD자료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 문화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문화 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하되,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학교 5, 6학년 영어교과서가 이전 교과서에서 드러났던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였는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지도 방법을 갖추고 있는지를 문화학습 방법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찾고자 한다. 더불어 교과서에서 소개되는 문화내용들을 분석하여 문화내용들이 문화소재와 문화유형, 그 배경적 측면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각각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학교 5, 6학년 영어교과서 5종 중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3종 교과서의 문화학습을 위한 부분인 문화관련 고정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한국검인정교과서, 2015). 더불어 지도서에서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는데 세 번째 분석내용인 문화배경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내용 이외

에도 지도서에 있는 참고란을 통해 보충, 심화 설명하는 부분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고, 네 번째 분석내용인 문화학습 방법 역시 지도서의 참고란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여 범위를 넓혔다.

교과서의 선정은 전국 초등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3종을 선정하였고 각 출판사 및 교과서명은 알파벳으로 표시하였다. 분석 대상 교과서와 각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관련 고정란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교과서 및 문화관련 고정란 내용

교과서	문화관련 고정란 명칭	출판사	단원구성 (문화관련 고정란 수)
A	We Are the World	C출판사1	14 (14)
B	Into the World	C출판사2	13 (13)
C	World Tour	D출판사	12 (6)

A 교과서의 문화관련 고정란인 ‘We Are the World’ 는 총 14단원으로 구성된 교과서의 각 단원마다 1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단원주제와 관련된 문화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를 의사소통 활동과 연관하여 복습하도록 유도한다. 총 1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진 B 교과서의 문화관련 고정란은 ‘Into the World’이다. 매 단원 5차시에 1/3쪽 분량을 차지하며 A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단원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며 의사소통 활동과 연관하여 제시한다. C 교과서가 다른 두 교과서와 구분되는 점은 두 개의 단원이 끝날 때마다 문화관련 학습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두 단원이 끝난 후 5, 6학년 각각 ‘Story Time’ 과 ‘Reading Time’ 이라는 총 2차시의 통합차시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글 읽기 및 단원의 내용 통합학습을 하고 있는데 ‘World Tour’라는 문화관련 고정란은 이 통합차시의 마지막 차시에 1/2쪽으로 구성되어있다.

2. 분석 기준 및 방법

본 연구의 교과서 분석은 문화내용과 문화교육 방법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시작하였다. 먼저 각 교과서의 문화내용이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문화교육의 다양성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9 교육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문화소재, 문화유형, 문화배경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각각의 내용이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빈도를 분석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둘째, 문화학습 방법의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Moran(2001)의 문화학습과정을 토대로 각 교과서가 제시하는 학습활동을 역할극, 조사학습과 프로젝트학습, 비교학습과 발표학습의 다섯 가지로 분

류하여 그 비율을 분석하였다.

가. 문화소재별 분석

문화소재별 분석 기준은 교육과정의 문화소재 4가지를 분석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44).

<표 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화소재별 분석기준

2009 개정 교육과정 소재	문화 지도 내용
소재 7.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	언어표현, 구문, 발음과 강세, 대화전개방식, 몸짓언어와 몸짓, 공간개념, 시선개념 등 의사소통을 위한 방식을 다루는 내용
소재 8.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다른 문화권의 개인, 가정, 학교, 사회생활, 의식주에 관한 내용
소재 9.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의식주, 전통적 생활습관, 호칭과 이름 등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와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다루는 내용
소재 10.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을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내용

교육과정에 제시된 여러 문화권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언어·비언어적 차이, 우리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등의 4가지 소재들 중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소재 9)’은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자들은 김희정(2012)이 제시한 문화소재별 지도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즉,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 문화의 소재가 다른 나라 문화내용과 함께 가지적으로 제시되어 비교, 대조가 가능할 때로 한정하도록 한다.

나. 문화유형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할 문화유형별 기준을 정리한 <표 3>은 Bierstedt(1970)의 문화유형 분류인 물질문화, 행동문화, 정신문화를 상위범주로 하고 보다 상세한 분류를 위해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구분하여 15개의 하위 항목을 설정하여 분석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기후나 환경에 따른 의식주 문화 산물 등은 물질문화의 하위 항목으로, 생활방식과 사회규범 등을 반영하는 문화요소는 행동문화의 하위 항목, 가치관이 투

영되는 예술과 문학 등은 정신문화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분석의 합리성과 일관성에 주의를 기울였다.

<표 3> 문화유형별 분석기준

문화 유형	하위 항목	내 용
물질문화	의식주	옷, 음식, 주택환경 등
	지형, 기후	계절, 날씨, 지리 특성 등
	교통, 통신, 기계	교통수단, 통신수단 등
	유적지, 유물, 풍경	지명, 문화재, 건물 등
행동문화	예절	인사법, 인사예절, 소개 등
	제도	법, 규범 등
	개인생활	가족, 식사예절 등
	사회생활	학교생활, 약속, 초대 등
	생활방식	관습, 전통 등
	여가활동	파티, 여행, 운동 등
정신문화	가치관	도덕성, 애국심 등
	언어	몸짓언어, 속담, 격언 등
	문학	동화, 희곡, 시 등
	예술	그림, 음악, 연극 등
	학문	과학, 역사, 종교 등

다. 문화배경별 분석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교과서에는 얼마나 다양한 문화권의 요소들이 소개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배경별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선정한 분석기준은 <표 4>와 같이 Kachru(1985)의 언어의 세 동심원인 영어를 제 1 언어로 사용하는 국가인 내부 원 (Inner Circle), 영어를 제 2 언어로 사용하는 국가인 바깥 원(Outer Circle), 영어가 외국어로 사용되는 국가인 확장하는 원(Expanding Circle)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 다음 이를 다시 대륙별, 즉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로 나누어 국가수와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표 4> 문화배경별 분석기준

권역	해당 국가
내부 원 (Inner Circle)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를 제 1 언어로 사용하는 국가
바깥 원 (Outer Circle)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영어를 제 2 언어로 사용하는 국가
확장하는 원(Expanding Circle)	중국, 일본, 대한민국, 독일 등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라. 문화학습 방법 분석

문화학습 방법 기준은 Moran(2001)의 문화학습 과정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성격이 비슷한 활동들을 묶어 분석기준을 수립하였다. 즉, 직접 문화를 접하고 본인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체험해 보는 활동 등은 역할극으로, 인터넷이나 책을 통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조사학습과 프로젝트 학습, 한국 문화와 목표 문화에 대한 비교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비교학습, 명화를 선택하여 인물을 묘사해보거나 행복한 순간을 말하기 등 생각이나 경험을 말하는 발표학습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문화소재 분석

본 연구의 교과서 분석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집필된 5종의 교과서 중 3종의 초등학교 5, 6학년 영어교과서의 문화소재 분석으로 시작하였다. <표 5>는 초등학교 5, 6학년 3종 영어교과서의 문화소재를 분석하여 빈도수와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표의 가장 오른쪽에는 각 교과서 별로 소개하고 있는 문화관련 소재의 빈도수 합계와 비율(%)을 제시하였고, 4개의 문화관련 소재 하단에 3종 교과서에서 각각의 문화 관련 소재가 어느 정도 다루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수의 합계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5> 5, 6학년 전체 교과서 문화 소재 분포

교과서	교육과정 문화 소재	영어문화권의 의사소통 방식	타문화 이해	우리 문화와 언어·문화 적 차이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 소개	합계	
						빈도	비율 (%)
A		5(17.24)	17(58.62)	7(24.14)	-	29	100
B		3(10.34)	17(58.62)	9(31.04)	-	29	100
C		2(15.39)	6(46.15)	5(38.46)	-	13	100
합계	빈도	10	40	21	0	71	
	비율 (%)	14.08	56.34	29.58	0	100	

<표 5>에서와 같이 5,6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내용의 소재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4가지 문화관련 소재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소재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우리 문화와 언어 • 문화적 차이, 영어문화권의 의사소통 방식이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 소개는 세 교과서 모두 다루어지지 않아 소재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5, 6학년 교과서의 문화소재 분포를 종합해보면 타문화 이해와 우리 문화와의 언어 • 문화적 차이 두 소재들을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나라 문화소재를 통하여 타문화의 일상생활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와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세계인으로서의 문화예절을 배우며 나아가 타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려는 교육 목표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반면, 영어문화권의 의사소통 방식의 내용과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 소개 항목은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강지영(2014)이 3, 4학년 영어교과서를 대상으로 문화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의사소통 방식의 내용은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내용은 본 연구의 5, 6학년 영어교과서에서는 1회도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 3, 4학년 영어교과서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었다. 이는 고학년의 수준으로 볼 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타문화를 더욱 비중있게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과 이를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영어로 소개하는 것은 매우 다른 측면의 의사소통 기능이다. 국내의 5, 6학년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의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문화내용을 다룬다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문화학습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문화소재의 항목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4가지의 문화소재를 제시했다는 것은 곧 초등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며 필수 지도요소라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다른 문화의 이해나 우리 문화와의 차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영어문화권의 의사소통 방식과 우리 문화에 대한 소개 항목 역시 많이 다루어져 4가지 문화요소를 고루 다룰 필요가 있다. 4가지 문화요소를 골고루 다루며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학습이 되려면 현재 교과서 설계상 문화학습에 할애되는 시간을 대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의 4분~8분에 걸친 문화학습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며 C 교과서의 예처럼 적어도 2차시에 걸쳐 단원의 앞부분에서 배운 내용을 문화학습란에서 실제 적용해 보도록 과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문화유형 분석

문화 유형 분석은 물질문화, 행동문화, 정신문화 기준에 따라 세부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경우에 따라서 한 단원에서 두 가지의 문화유형이 다루어 질 경우 빈도를 중복 인정하였다.

<표 6> 전체 교과서 문화유형 분석

문화유형 (5·6학년)	하위 항목	빈도(비율(%))	합계	비율 (%)
물질문화	의식주	11(36.7)	30	43.5
	지형, 기후	6(20)		
	교통, 통신, 기계	2(6.6)		
	유적지, 유물, 풍경	11(36.7)		
행동문화	예절	6(22.2)	27	39.1
	제도	5(18.6)		
	개인생활	- (0)		
	사회생활	9(33.3)		
	생활방식	1(3.7)		
	여가활동	6(22.2)		
	가치관	5(41.6)		
정신문화	언어	- (0)	12	17.4
	문학	3(25)		
	예술	2(16.7)		
	학문	2(16.7)		
합 계			6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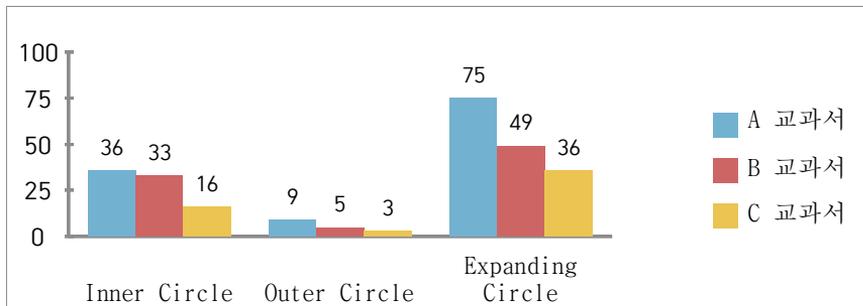
문화유형별로 비교한 분석 결과를 보면, <표 6>과 같이 물질문화 43.5%, 행동문화 39.1%, 마지막으로 정신문화는 17.4%로 나타나 있다. 물질문화와 행동문화는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그에 비해 정신문화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빈도가 10이상인 항목이 있는가 하면 한 빈도 출현하지 않은 항목도 있어 하위 항목별 불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물질문화에 속하는 하위항목들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의식주와 유적지·유물·풍경의 항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지형·기후가 그 다음을 이었다. 교통·통신·기계는 5, 6학년 3종의 교과서 중 2회만 다루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행동문화에 속하는 하위항목의 빈도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이나 약속, 초대하기 등의 사회생활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절, 여가활동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개인생활 항목은 1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신문화에 속하는 하위 항목의 빈도 분석 내용으로 가치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문학, 예술, 학문의 순이었다. 언어적 항목은 출현 빈도가 없었다.

7차 개정교육과정을 적용시킨 6학년 영어교과서를 분석한 박선희(2012)의 문화유형 분석 결과, 행동문화 49.5%, 물질문화 30.5%, 정신문화 20%로 나타나 물질문화가 가장 많이 나타난 본 연구와 약간의 차이가 보였지만 물질문화와 행동문화에 비해 정신문화의 비중이 낮은 것은 같았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행동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바람직한 결과라고 한 해석과 본 연구자들의 정신문화에 대한 의견은 좀 다른 면이 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인성교육의 측면도 강조하고 있고, 문화교육 역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화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 도덕성 등 비가시적인 문화의 비중을 높이 두고 있기 때문에 영어교과서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신문화의 하위항목에는 문학, 예술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계적인 예술 작품이나 동화, 작가 등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정신문화를 다루는 것이 교육과정의 정신과 부합된다고 하겠다.

3. 문화배경 분석

다음 [그림 1]은 전체 교과서를 문화배경별로 분석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내용과 더불어 지도서에 참고내용으로 소개된 나라의 문화까지도 포함한 분석내용임을 다시 한 번 알린다.



[그림 1] 문화배경별 분석

세 교과서 모두 Expanding Circle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Inner Circle, 마지막으로 Outer Circle이 가장 적게 언급되었다. 비율로 살펴보면 Expanding Circle은 61.1%, Inner Circle은 32.4%, Outer Circle은 6.5%로 차지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거의 대부분은 문화배경을 Lado(1964)의 분류인 영어권 문화, 대조 문화, 기타 문화, 보편 문화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기존 연구를 찾기가 힘들지만 강순여(2015)는 본 연구자와 동일하게 오늘날의 영어가 국제어

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Kachru(1985)의 언어 동심원으로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5, 6학년 영어교과서의 문화내용을 분류, 분석하였다.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확장하는 원이 6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내부 원이 26.3%, 바깥 원이 9.4%로 뒤따르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Expanding Circle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Expanding Circle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출현이 각 교과서마다 많으며 단어의 의미 그대로 확장하는 원에 해당하는 나라, 즉 영어를 모국어나 제 2 언어로 사용하는 나라들 보다는 외국어, 국제어로 사용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번에는 각 원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대륙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표 7>을 살펴보면 Inner Circle에 해당하는 국가들 중 북아메리카, 그 중에서도 미국에 관한 문화 내용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대적으로 같은 대륙의 캐나다의 출현 수는 극히 일부분 이었다.

<표 7> Inner Circle 의 대륙 • 국가별 분석

대륙	Inner Circle							
	유럽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학년	5	6	5	6	5	6	5	6
국가수	2	1	2	2	1	1	1	2
합계	3		4		2		3	
빈도수	13	12	24	22	1	1	9	3
합계	25		46		2		12	

두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유럽 대륙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문화를 다룬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3개의 교과서 중에서 영국이 아닌 나라의 문화를 다룬 교과서는 1개로 스코틀랜드가 있었고, 이마저도 1회에 머물렀다. 세 번째로 많이 소개된 대륙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속해있는 오세아니아이며 아프리카에서는 한 개의 국가가 소개되었다.

<표 8> Outer Circle 의 대륙 • 국가별 분석

대륙	Outer Circle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학년	5	6	5	6	5	6
국가수	3	4	-	1	2	1
합계	7		1		3	
빈도수	5	7	-	1	3	1
합계	12		1		4	

<표 8>은 Outer Circle에 해당하는 대륙별 국가들과 출현 빈도수를 정리한 내용이다. Outer Circle은 Inner Circle과 Expanding Circle에 해당하는 국가수와 빈도수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거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내의 국가들의 문화가 많이 다루어짐을 볼 수 있는데,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족과의 근거리 해외여행이 과거보다 많아지고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보다 친근한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여 흥미를 이끌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표 9>는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Expanding Circle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대륙별, 국가별 빈도수이다.

<표 9> Expanding Circle 의 대륙·국가별 분석

Expanding Circle										
대륙	대한민국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학년	5	6	5	6	5	6	5	6	5	6
국가수	1	1	8	8	12	12	3	4	1	-
합계	2		16		24		7		1	
빈도수	5	15	26	24	43	35	6	4	2	-
합계	20		50		78		10		2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시아대륙, 그리고 유럽대륙의 국가 수 및 빈도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 대륙에 속하는 나라의 문화를 많이 다루고 있는 이유는 다른 대륙보다 인구수가 많고,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이므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은 출현하는 수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의 빈도수가 많기는 하지만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면 단발성으로 나오는 나라들이 많아서 다양한 문화를 학습하는 데에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5년 8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미국, 베트남, 타이 순으로 많은데 베트남은 3개의 교과서에서 총 3회만 언급될 뿐이었다. 이를 통하여 초등영어 교과서가 우리나라의 다문화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문화학습 방법 분석

각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내용을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학습하게 하는지 역할극, 조사학습, 프로젝트 학습, 비교학습, 발표학습 5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결

과는 <표 10>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사학습이 학년별로 69.7%, 75.8%를 나타내며 전체 교과서 모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표 10>에서도 드러나듯이 거의 대부분의 문화내용을 학생들에게 사진자료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조사하여 알아보도록 하는 것으로 학습 방법에 있어서 지나친 단조로움을 나타냈다. 한 출판사의 경우에는 문화학습 방법이 한 가지로만 제시되어 있어 과연 문화지도를 하는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전 교육과정들과 비교하여 다른 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앞선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즉, 놀이와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해하도록 지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교과서들은 이러한 방법들은 소개되어있지 않은 채 수동적인 학습 형태만 제시해 놓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표 10> 전체 교과서 문화학습 방법 분석

문화학습방법	교과서		A		B		C		합계		비율(%)	
	학년											
		5	6	5	6	5	6	5	6	5	6	
역할극	2	-	-	-	-	1	2	1	6.1	3.0		
조사학습	4	7	13	13	6	5	23	25	69.7	75.8		
프로젝트 학습	-	1	-	-	-	-	-	1	0	3.0		
비교학습	3	-	-	-	-	-	3	-	9.1	0		
발표학습	5	6	-	-	-	-	5	6	15.1	18.2		
합 계	14	14	13	13	6	6	33	33	100	100		

김유정(2012)이 문화동화, 문화캡슐, 문화방백, 역할극, 원어민 초청활동 등을 문화 주제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 수업한 실험집단이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를 그림, 동영상, 인터넷을 활용하여 소개하고 설명하는 문화지도를 한 통제집단에 비해 문화 간 내용이해 능력향상과 문화 간 감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는 교과서의 단조로운 학습방법 제시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김희정(2012)과 김가현(2014)의 요구분석 연구에서와 같이 영어교육에 있어 문화교육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으며 문화교육에 대한 흥미를 높이 가지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문화인식에 비해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시간확보의 어려움이나 교사의 문화지식이나 경험 부족, 지도서 및 CD 자료의 정보 부족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 현 개정 교육과정 영어교과서는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효과적인 문화교육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학교 5, 6학년 3종의 영어과 검정교과서의 문화소재와 문화유형 및 문화배경을 분석함으로써 그 문화적 다양성과 항목별 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교육현장의 요구사항인 문화교육 방법의 다양성이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교육 방법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소재 항목 가운데 4 가지의 문화관련 소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에 의거한 3종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네 개의 문화소재 가운데 타문화를 이해하는 소재와 우리나라와의 언어적·비언어적 문화차이의 비중이 높았으며 나머지 영어문화권의 의사소통방식과 우리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소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서 볼 때, 소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우리 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며 문화를 배우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소재 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운 소재라 하더라도 이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둘째, 문화유형별 분석에서는 물질문화(43.5%), 행동문화(39.1%), 정신문화(17.4%) 순으로 소개되었다. 물질문화와 행동문화가 교과서의 주가 된 이유로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외국어학습이 초기인 초등학교의 수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정신문화가 두 문화에 비해 그 비중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문화교육이 단순한 배경지식을 넓혀주는 데 목적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성을 계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단계에서는 좀 더 고등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정신문화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유형에 따른 하위항목별로도 빈도의 균형이 맞지 않아 보다 세심한 문화내용 선택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배경별 분석에서는 Expanding Circle, 즉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국가가 해당되는 권역이 높은 비율로 출현하였다. 하지만 이 권역의 나라들을 대륙별로 분류하여 보면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대륙은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었으며 또한 다른 두 권역도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대륙만을 많이 다루는 등 마찬가지로여서 대륙별로 고르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나라별로 보았을 때에도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등의 문화는 출현하는 빈도수가 많은데 비해 베트남,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단발성으로 그치는 나라들이 많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비추어볼 때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문화소재와 문화유형 및 배경이 모두 단순하고 친숙한 주제에만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학습 방법 또한 조사학습에 국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험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그 결과 문화 간 감수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문화학습의 본래의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초등영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진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어떻게 문화교육을 영어교육에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 역시 매우 부족하다. 현행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학습의 방법이 매우 단조롭고 인터넷 매체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연구와 논의가 실제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과정을 수립하는데 있어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현장에서 문화교육을 하는데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는 장이 많아진다면 현재 영어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문화내용과 문화배경의 편향성, 학습방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화수업 방법 및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자료제시의 방법으로는 문화교육이 학생들에게는 지루한 절차로, 교사에게는 바쁘게 진도 나가기에 치여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는 정도의 시간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다양한 문화교육의 내용을 지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와 지도서는 이것저것 자료를 열거해놓고 다른 정보는 알아서 인터넷으로 찾으라고 제시하는 방법에 그치지 말고, 직접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초등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역할극, 발표, 퀴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몸으로 체득하며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셋째, 교과서 간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접한 문제점 중 하나는 출판사마다 다루는 문화내용이 다르고 학습하는 방법도 다르며 횡수도 다르다는 점이다. 문화를 지도하는데 있어서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활동을 위하여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초, 중, 고등학교별로 어휘 수와 단일 문장의 길이를 참고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문화지도와 관련된 내용들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과서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다 균형있고 심도있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영어가 나날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사소통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교과서 분석 결과와 제언을 바탕으로 좀 더 내실 있는 문화교육으로의 발전을 위한 문화교육의 실천과 그 효과에 대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순여(2015).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5·6학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 요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지영(2014).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초등영어 교과서의 문화교육 자료 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외국어(영어)**.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1).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4)**.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V)**. 서울: 대한교과서.
- 김가현(2015).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 교과서 문화 내용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한(2008). 영어과 문화교육과정 확립 방안. **영어교과교육**, 7(2), 17-37.
- 김광수(2010). 초등영어 문화 지도. 이완기 외(편), **초등영어 지도법** (pp.366-404). 서울: 제이와이북스.
- 김유정(2012). 초등영어 문화지도가 문화간 이해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2012).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의 문화내용 분석과 체험중심 지도방안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2012). 초등학교 6학년 영어교과서 문화내용 분석: 7차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규, 박주경(2010). 초등영어 문화교육 연구 분석. **영어영문학**, 23(3), 139-157.
- 변정미(2013). 초등 영어 교과서 문화 내용 분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완기, 차경환(1999).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내용과 지도방법 연구. **영어교육**, 54(1), 327-372.
- 정정섭(1982). **외국어 교육의 기초와 실천**. 서울: 동원출판사.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15.9.20). 2015년 8월호 통계월보.
<http://www.immigration.go.kr/>에서 2015년 9월 20일 인출.
- 한국검인정교과서(2015.6.10). 정보마당 교과서공급. <http://www.ktbook.com/>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 Bierstedt, R. (1970). *The social order*. New York: McGraw Hill Company.
- Day, R. D. (1985). The ultimate inequality: Linguistic genocide. In Wolfson, Nessa, and Joan Manes (Eds.), *Language of Inequality* (pp.163-181). Berlin; New

- York; Amsterdam: Mouton Publishers.
- Kachru, B. (1985). Standards, codification and sociolinguistic realism: The English language in the other circle. In R. Quirk & H. G. Widdowson (Eds.), *English in the world: Teaching and learning the language and literatures* (pp.11-3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do, R. (1964). *Language teaching: A scientific approach*. New York: McGraw Hill.
- Moran, P. R. (2001). *Teaching culture*. Boston: Heinle & Heinle, a division of Thomson Learning, Inc.
- Pennycook, A. (1994). *The cultural politics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London: Longman.
- Polizer, R. L. (1960). *Teaching French: An introduction to applied linguistics*. Boston: Ginn.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Mich: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rn, H. (1992). *Issues and opinion in language teachi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논문 접수: 2016년 1월 15일

논문 심사: 2016년 1월 21일

게재 승인: 2016년 1월 26일

<ABSTRACT>

An Analysis of the Methods of Cultur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s for 5-6th Graders

Cho, Mi- Young(Hanyang University)

Han, Moon-Sub(Hanyang University)

Kim, Kyung-Hye(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 on culture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level by analyzing the cultural contents in the English textbooks based on the 2009 revised Elementary English National curriculum.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s investigated the cultural contents in the three widely-used elementary English Textbooks in terms of cultural topics, types, backgrounds and the ways of teaching cultur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ultural understanding was found to be the most frequent topic among the four topic categories: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communication methods in English-speaking culture, the understanding of different cultur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ative culture and others, and introducing one's native culture. Second, material culture and behavioral culture are covered frequently in the textbooks whereas spiritual culture aspects were uncommon. Third, as for the cultural backgrounds, which were analyzed by Kachru(1985) model, the countries of Expanding Circle were introduced most frequently and diversely. Then came Inner Circle and Outer Circle countries. By continent, the ratios of African and South American cultural contents were much lower than those of European and Asian cultures. Fourth, the teaching methods in most textbooks were not varied and failed to offer students diverse chances to experience other cultures.

In conclusion, English textbooks are important resources to teach culture especially in the EFL environment. Therefore, textbooks need to cover wider range of intercultural subjects including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order to raise students'awareness and sensitivity of diverse cultures.

★ **Key words:** culture education, textbook analysis, 2009 national curriculum